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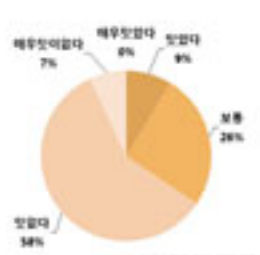
1면	학생 식당 메뉴 발표	1면	학생식당	1면	학생식당
2면	학생 식당 메뉴 발표	2면	학생식당	2면	학생식당
3면	2012년 5월 1일	3면	학생식당	3면	학생식당
4면	2012년 5월 1일	4면	학생식당	4면	학생식당
5면	2012년 5월 1일	5면	학생식당	5면	학생식당
6면	2012년 5월 1일	6면	학생식당	6면	학생식당
7면	2012년 5월 1일	7면	학생식당	7면	학생식당
8면	2012년 5월 1일	8면	학생식당	8면	학생식당
9면	2012년 5월 1일	9면	학생식당	9면	학생식당
10면	2012년 5월 1일	10면	학생식당	10면	학생식당

학생 식당은 지금, 변화중?

교수님들, 학생들 / 권민호, 노수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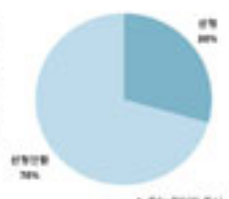
2012년을 맞아 우리 학교의 식당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10년 9월 초 복지추진실에서 대청과 함께 식당에 처음 영입을 시작한 이후, 학교생활의 질은 한 단계 높아진 것이 분명하다. 특히 식당은 가까워야 하는 큰 장점으로 점심, 저녁뿐만 아니라 재학생들, 방문직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1년이 지난 식당을 이용해보면서 식당 메뉴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그래서 지난부터 학생들의 식당 음식의 종류, 양, 질 및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모으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29대 학생회에서 그 의견을 종합하여 식당 관련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 학생들의 설문조사로 시작된 변화의 시작



그리고 식당 시스템을 변경시켜, 조리 화랑자가 40명이 넘는 경우 화랑으로 한 식사 구역의 10%정도 작업은 식권을 발급해 조리 직사를 실시하고, 점심과 저녁 식사는 기존의 2가지 메뉴에서 1가지 메뉴로 통일하고 푸드코스트식의 영등요리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조리 의무제 제공은 화랑자가 최소 3명 인원수인 40명에 미치지 못하여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난 9월, 그리고 올해 3월 재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식당 음식의 맛이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생회 기획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과장 및 행정실장과 함께 경북 재학생 과정별 식당 책임자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을 한 음식의 맛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한 많은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결국 밥 이용을 높이고, 변한 구성의 다양화, 과일 등 후식 제공을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 피드백을 거친 현재의 운영 방식과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3월 19일 변화가 시작된 이후 무려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은 후 피드백을 통해 4월 2일부터 식당 운영방식이 일부 수정되었다. 먼저 가장 불만이 많았던 학생의 경우 점심으로 제공하던 기존의 방식으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기존의 기존과 동일하고 재학생들 의견을 수용하면 된다. 따라서 영등요리는 항상적인 제공되는데, 학생들의 불만 가운데 콘바스의 점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수렴해 콘바스 피드를 교체하여 맛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더불어 앞으로 영등요리 주문 시 김치와 우동장국은 무료로 제공된다. 학생식이 급이전,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 양배 채사등을 모두 개량하고, 식당 내 조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선사이드를 제공한다.



항목	학생 메뉴 개선사항
100%	4월 19일부터 제공
100%	4월 19일부터 4.19~4.20
100%	4월 19일부터 4.19~4.20

▲ 조리인원 확대와 조리인원 수

이렇게 크게 두 차례의 변화를 거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과 식당업에 사어에 소용이 많이 열렸다는 점이다. 서로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합의 내리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로 학생회 사시 영등요리를 통해 기존보다 다양한 요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맛에 대한 피드백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큰 의미로 학생회와 식당을 공조함으로써 학교 식당이 많이 좀 더 현대적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학생들을 바꾸어 좀 더 효율적으로 대기시간을 줄여주고자 노력하는 등 꾸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배양과 할 과제들은 많이 있다. 특히 식권을 대량 구매할 때 일정 부분 할인율에 추가해서 카드 결제의 허용 부분 등에 있어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변한 종류의 다양화, 맛의 향상 문제도 꾸준한 실천과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맛과 메뉴의 개선 첫 시도.. 그 결과는?

설문조사와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3월 19일부터 식당 메뉴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심, 저녁 메뉴는 단상 메뉴로 축소되고, 식당 전체에 푸드코스트식의 영등요리 운영이 실시되었다. 영등요리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결과를 토대로 점심에는 우동, 라면, 짜장면, 만두라면, 순살콘크리트, 치즈콘크리트, 짜사리는 점심의 6가지에 재학생들, 오징어덮밥, 닭볶음탕, 김치볶음밥, 참치해물밥을 추가하여 단상메뉴와 콘크리트 가운데 매일 2개씩을 선택할 수 있는 제공되었다.

그러나 기존 이용방법에서 김치스리얼은 변해 혼란이 없었으나, 특히 학생의 경우, 점심에 사라지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져 불편하다는 불만이 바로 접수되었다. 예를 들어 우동을 마치고도 저녁 늦게까지 실습을 할 때, 원내의 경우 다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영등요리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용이 힘들어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점심시간에도 점심이 2가지 메뉴에서 1가지 메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배에 시간이 길 때는 7분 이상 소요되고, 영등 메뉴 역시 급급 시간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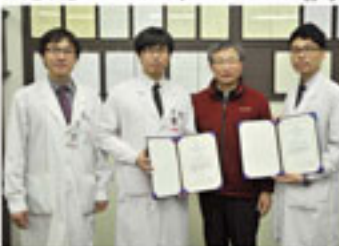
▲ 학생 식당 내부 모습 / ▲ 식당에 이용가능한 음식은 다양하다

대한치의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 대회 입상

- 포스터 발표 부문에서 박홍규, 송억준 금상 수상, 김강민 장려상 수상

글 홍기안 / 편집 노우현

지난 2월 26일, 대한치의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백암집구기념관 컨벤션 홀에서 개최되었다. 치과대학, 치과병원 출신 등의 우수한 인재를 통한 생명 재료 기계 공학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활용, 치과 치과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4백만 원 상당의 상금을 내리고 다양한 포스터 발표는 전국 치과 및 치과대학, 치과병원 등에서 모두 51개의 포스터 발표가 펼쳐져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포스터 발표 부문에서는 "The effect of soybean extract on coaggregation or biofilm formation of *Streptococcus mutans*"를 주제로 발표한 우영대학교 구강미생물학 교실의 박홍규 · 송억준이 금상을 수상했다. 구강미생물학 교실의 박홍규, 송억준은 2011년 9월에 본교에서 개최된 총 13회 학생 학술발표대회에서도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치위생전문대학원 동창회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에 개최된 대한치의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 부문 금상을 수상함으로써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또한 본교에서 개최된 학술발표대회에서 금상 수상한 바 있는 우영대학교 김강민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 외에도 장려상에 원광치과대학의 김병현, 연세치과대학의 김지혜, 단국치과대학의 박성민, 동서치과병원 최오영록 · 우성민, 연세치과대학의 이은영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치치학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국내외 연구자를 초청해 강연이 펼쳐졌으며 포스터 발표와 제9회 치치학계 학술상(김연서치치학상) 시상, 기자제 전시회, 경품 추첨 등이 다채롭게 이어졌다. 이번에 열린 학술대회의 등록선원은 약 400명으로 이를 절대로 설명을 어렵다. "치치학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가져온 이은영은 일본과 중국이 치치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본의 Shoji Kasagi 교수, 중국의 Xu Zhang 교수를 통해 들어오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국내에서도 stem cell, tissue, computer 등 각 분야 모두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는지에 대해 이영준 교수(서울 아산병원), 박주철 교수(서울대), 김광문 교수(분당 서울대병원), 영광호 박사(가천치과병원), 김동환 박사(서브 치과의원)를 통해 학제학으로 치치학의 효용을 설명했다.



▲ 좌로 부터 송억준, 박홍규, 김강민, 박주

학년간 교실의 변경

글 홍기안 / 편집 노우현

2012년부터 학년 교실이 바뀌었습니다. 학년제 1학년 교실이었던 203호를 3학년이 사용하고, 2학년 교실이었던 205호를 1학년 교실로, 그리고 3학년 교실이었던 306호를 2학년이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표지판도 달았습니다. 특히 205호는 지난 겨울방학동안 천천 고쳐 및 시설물 추가 등을 통하여 새로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을 위해 환경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업이 많은 1학년의 개인식 교실임을 사용하도록 하고 3층 기공실 및 임상연간실 실습실 사용이 많은 2학년이 3층 교실을 사용하도록 한 학교측의 배려 덕분에 교실에 대한 의견은 다양해졌습니다. 다른 교실을 사용해 보지 않은 1학년 학생들은 개인식 교실의 사용에 대해 수업환경 개선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203호를 2학년 사용하는 3학년 학생들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3학년 수업에 들어오시는 학년 교수님들 중에는 203호는 처음이라 개인식 강의실과 비교하여 좋지 않은 강의 환경에 대해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셨으며, 3학년 학생들은 방화문장이 많은 방에 교실이 2층이라 방화문으로 통하는 입구와 떨어진 침, 작은 시설물 수로 인하여 실습에 사용되는 여러 재료 및 기구를 보관이 불편한 침 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2학년 학생들은 실습실 교실 이 많은 층에 있어 실습실 사용이 편해졌다고, 1학기보다 실습수업이 더 많아지는 2학기에 그 편익성이 높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으로 3학년, 4학년 전체의 3층 출입이 줄어들어 이에 실습에 대한 호전을 구하기 힘들어 진 것, 그리고 줄어든 물동량으로 교실용물 등 1학년과의 교류가 감소하여 세안실, 침소독 제한할이 생긴 것 등을 꼽았습니다.



▲ 새로운 사용환경 개선된 205호 2학년 205호 및 1학년 205

재학생, 동문 입학식을 갖다

글 홍기안 / 편집 노우현

지난 3월 15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문 입학식이 있었다. 이번 입학식은 승근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석양동 동창회를 많은 내빈들과 1,2학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대학교 치위생전문대학원 본관 1층 강당에서 진행 되었다. 이로써 경북대학교 치위생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1,2,3,4학년생 모두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위생전문대학원 동창회의 영예를 되었다. 재학생이 동창회에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과거 치과대학 시절과는 달리 치위생전문대학원에서는 졸업 후 바로 재입학도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경험과 사람지식이 오차지점 많은 상황에서 사후로 질문하게 되는 경우도 없었다. 따라서 재학생들 동창회 입학식을 통해 현재 치과대학, 동창회원들과의 많은 접촉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번 동창회 입학식 주요 취지라고 석양동 동창회장은 밝혔다. 또 이번 입학식에는 장학금 전달도 있었는데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심사를 거친 후 4백만 원에 이르는 장학금, 3학년 급료 수 학부, 2학년 선물주 학부가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장학금 대상자는 개인당 300만원에 수당 후 졸업 후 5년간 기간이 지난 뒤 만나는 혜택, 지원했다. 이번 대상자는 생애이탈 할 요로 철저 장은 장학 기금을 조성하여 대우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석양동 동창회장은 밝혔다.



▲ 유언에 장학금, 4백만 원 장학금, 동문회 장학금 수여식과 장학금 전달하는 모습. 기념 사진

사 령

아래 사원을 2010년 경북대학교 치위생전문대학원 신문사 기자로 임명합니다.

편집장	이지은A
수습기자	박지열 배성렬 윤재희 정원혁 정현주 한아름 황철환

Apollonia

소중한 기억, 모꼬지

글 이재, 송현진 | 사진 이재

경국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로 통지를 받고 기뻐하던 순간이 얼고저 감안에 빠져 입학 편지 한 줄 하기도 전에 지나갔다. 입학과 동시에 맞이하는 생활들과 처음 경험해보는 분위기에 장신업이 3월이 지나고, 4월 6일, 우편 처음으로 선배님들, 교수님들과 함께 학교를 떠나 나눔이름을 거게 되었다. 3월 한 달 버티던 일정을 뒤로 한 채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기쁨과 처음 다 들어 왔다는 설렘을 안고 무뎠던 마음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 전까지 2학년, 3학년, 4학년 선배님들과 대면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얼굴은 익혔던 과의 어떤 선배님들과 같은 보가 되어 1박 2일을 보낼지 걱정도 되었다. 다행히도 모꼬지 때 만난 우리 조의 선배님들은 다들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었다.

학 생활에서 준비해온 간식을 먹으면서 버스는 탄성을 함께 달고, 행복한 웃음과 마음을 탄 피할 수 없었다. 피곤해서 그런지 중간 중간 졸다보니 어느새 버스는 안대공원에 도착했다. 버스에 서 내려가 거센 바람에 찬면 놀라고, 주변 경관에 또 찬면 놀았다. 도착해서 호텔로 옷자리를 입고 김밥을 먹으며 휴식을 달고, 간단한 자기소개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식사를 마친 후 바로 호텔 미션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미션은, 호텔로 주어진 글자를 합성해서 콜로로 표현한 사진 학기 '2012 KNU SCHOOL OF DENTISTRY FIGHTING SPRING 모꼬지 IN YANGSAN m^m' 라는 글자를 호텔로 나누었고, 모두를 이끌기 위한 다 임팩트 있는 사진을 찍을지 고민해서 다음 차례 있게 표현했다. 두 번째 미션은, 주어진 차세어를 표현 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오기 우리 조는 "살림"이라는 단어를 받았고, 선배님들과 같이 고민한 끝에 차례로 앉았이는 남자를 위해 여자들이 서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서로 마주보는 장면을 연출하기로 했다. 역시 쉽고 간단했지만 그 덕분에 살림이라는 단어가 더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바람이 많이 부는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학 생활에서 준비한 재미있는 프로그램 덕분에 모두들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사진 미션이 다 끝나고 간식으로 받은 바나나를 먹으며 호텔로 자유 시간을 가졌다. 수건물리기를 하는 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조, 술이질기를 하는 조, 알까기기를 하는 조 모두 행복하고 신났었다. 너무나도 기쁜 바퀴 때문에 OK때로는 하지 못하고 다음 버스에 탑승해 속소인 양산 레전달리 리조트로 향했다. 행복한 일정이 속속스러가는 짧은날 끝내려니 버스에어는 다음 말이 들었다.

숙 속에 도착해 휴식시간을 갖으며 새벽을 보송하고 착사신을 했다. 피곤한 일정을 소화해서 그런지 다음 아침 몸이 움직이기 어렵고, 식사 후 도리어 모꼬지의 곳, 레크리에이션 시간 교수님들께서도 참 관하신 가운데 마당 달리기, 율바름, 율바름 비자로 광학기, 그리고 낮에 학자 문었던 OK때를



▲ 2012 KNU SCHOOL OF DENTISTRY FIGHTING SPRING 모꼬지 IN YANGSAN m^m에 호텔로 표현한 사진

하여 모꼬지가 많은 다들 일어났었다. 학생회에서 준비한 게임을 모두 마치고, 전은 레크리에이션 장소와 함께 새로운 게임을 했다. 그 중 특히 교수님들과 선배들이 모두 어울려서 "에" 하고 소리치는 게임을 할 때에는 장다 지지 않으려 노력한 1학년 승철과 학우 덕분에 모두의 배움이 베풀었다. 강사의 진행 중간에 우리 1학년들의 참가자명으로 분위기는 또 한번 후끈 예뻐 참가자들 데 1, 2, 3등을 차지한 '사랑하는 우리 단을기 대학원과 아이였어', '이상대여원회', '기적의 서키스' 등이 예뻐 데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참가자명으로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에게 모욕을 선사했다. 좋은 분위기 덕분에 선배님들, 교수님들과 한 가족이 된 것처럼 다들 친해진 기분이 들었다.



▲ 2012 KNU SCHOOL OF DENTISTRY FIGHTING SPRING 모꼬지 IN YANGSAN m^m

한 생 무모락은 분위기를 안고 각 호텔로 방에 모여 교수님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고 노래도 함께 하다 보니 금방 시간이 지나갔다. 학교에서 본 것 같고 무뎠던 모습이 아닌 재밌고 좀 다슬직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교수님들, 전한 분, 누나, 혹은 친구같이 친밀하게 잘 대해주시는 선배님들, 그리고 앞으로 꼭 함께 나날일 우리 가족 같은 동기들과 즐겁게 술을 한잔한 하다 보니 밤에 아슬아슬이 되어 있었고 즐거운 시간이 너무 금방 끝나버렸다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다시 대규모 헤어져야 했다.

그 동안 이 곳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걸작이 많은 시간 동안 정말 좋은 행사가 있었다. 누군가는 기쁨 너무 많은 행사 때문에 자제하고 피곤해서 참여하기 싫었던 것도 있었던 것이 다. 하지만 행사를 하나 둘 쳐보면서 동기들과 다들 친해지는 기회를 갖고, 한 분 한 분 중요한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행사들이었다고 생각한다면, 후에 이 모든 경험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중 일편은 두 달 할 것 없이 모꼬지였 것이다. 이제 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에어우려 생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4학년 선배님들, 그리고 이번 시간을 뜻깊게 학 생활을 위해 달려와 주신 교수님들까지 모두가 참석해 서로 격이 없이 어울린 1박 2일은 경북대학교 치의학과 학생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슴깊이 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다. 이 시간들은 자발적인 공동체 참여와 어울림을 통해 행복감을 깨울 수 있었던 내 인생의 소중한 경험, 그 이상이었다.



▲ 모꼬지 단체 사진



새로 오신 교수님을 만나다.

윤성환 / 조영희 / 권영민 기자

2012년 새학기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 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두 분의 교수님이 새롭게 부임하셨다. 1학년들이라면 인체세포분자생물학 시간에 보여 친숙한 구강생화학 교실 이영균 교수님, 2학년들에게는 치주질환을 통해 먼저 인사하신 치주과학 교실의 김웅건 교수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교육, 강의, 연구 및 진료로 인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신 두 교수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강생화학 교실 - 이영균 교수님)

Q. 본인의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A. 저는 73년생으로 서울대학교 학과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3년 정도 연역학 연구실에서 Post-Doc 생활을 했습니다. 아래는 미국에 가기 전에 만나 미국에 가고 1년 뒤, 2002년에 결혼해서 지금은 4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Q. 학교에 부임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A. 대학원 졸업 후 미국에서 3년 정도 연역학 연구를 하다가 2005년 말부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유년 정도 있었습니다. 전공은 사치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osteoclast가 어떻게 분화하고 기능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Q. 혹시 치과대학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A. 미국에서는 연역학 연구를 했는데, 한국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연한 기회에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에서 osteoclast를 연구하시는 김홍희 교수님과 인연이 닿아 그 생활실 연구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과대학과의 인연을 맺게 되었고, 또 좋은 기회가 생겨 경북대학교로 복 이전해 하던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인성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 어떻게 우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Q. 학령시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A. 특별한 기억이 없다가 보다는 축제 때 친구들과 즐겁게 보낸 일과 평소엔 당구를 치거나 놀러 다닌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좋아하는 과내에서 사회과학 관련 서적을 읽고 토론을 하는 독서토론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같은 대학교에 고등학교 동문들이 꽤 있었는데 함께 정명포럼을 했던 것이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관아동의 133은 우리가 다 소아병자인 것 같았습니다.

Q.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A. 수학을 못했는데 물리화학이나 방자역학을 배워 배서 힘들었습니다. 학교에 물리화학에 정통하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때문에 물리화학 1, 2, 3이 전부 전공필수라 더 힘들었습니다. 잠깐 지금 강의 하고 있는 생화학은 전공선택이었습니다. 공부필수라는 친구들과 즐겁게 보냈고 대학생활도 순탄하게 잘 보냈습니다.

Q. 지금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고등학교 화학성적이 좋은 편이었고, 화학이 흥미 있었어 보아서 전공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실습을 생체하고 교과를 분석하면서 즐겁게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원을 가기로 마음먹어서 3학년 겨울방학부터 학부생 연구참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Q.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과의 장점을 해주신다면?

A. 생화학 교실을 자원하고도 한시간 이상 강의 자료 학문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기초 치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관련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고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취미가 있으신가요? 강의 이외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말씀해주세요.

A. 옛날에는 시간만 쉰수록 좋았습니다. 지금은 틈틈이 헬스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보통 강의 준비를 하면 강의시간의 적게는 5-10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외에 여러 서투 취미와 연구계획 작성도 해야 되고, 교수님들과의 친목도도 해야 되고, 인사도 다녀야 되고, 대학원생들 보기도 할런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지원한 학생들에 대한 인상은 어떤가요?

A.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해서 학생들에 대한 첫 인상이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교수님들, 친구들과 친해지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학생들의 기대에 모자란다면 저겠다 생각해서 수업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Q.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A.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다음 대학을 졸업하고 해서 서로 출신 지역, 대학, 나이 등 여러 가지 배경들이 다르지만, 무뎠무뎠 잘 지내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도 친한 것과 예의 사이의 경계를 모를하면서 잘 자르시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게 많아서 모든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일지 모르지만 꼭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업 관련해서는 다음 달 이후 잘 해라 생각합니다. 인생에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편안히 빨리 깨닫고 소중히 보존할 것입니다. 학생들을 만나서 정말 반갑고, 학문지 잘해주고 싶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마는 많은 것들 하면서 가려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치주과학 교실 - 김용건 교수님)

Q.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무신출생이고, 97년도에 경북대학교(지금의 경북원주대학교) 치위생과에 입학해서 2003 년도월에 졸업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턴 때 과를 정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치주과를 선택했고 2007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가족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안산 하이브와 5살만 많이 있고 둘째 5살만 아들이 생김 예정입니다. (웃음)

Q. 학교에 부임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A. 군생활을 2007년도에 복직전도 마치고 3년간 했었는데 첫 1년은 경기도 인천 제5보병사단에서 복무 했고, 육군교양병원으로 옮겨서 치과부장으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5월 부터 여기 오기 전까지 중성대 병원에서 근무 했습니다. 중성대 병원의 특징이 학생공무원이라는 고 임박수술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임박수술은 학이나 외형적 부분이 많이 예뻐진 후에, 보통 환자 들이 있을 같은 곳에 상여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상여적인 부분에서 치과교정과, 구강악안면 외과와 같이 협으로 일했고 치주 과를 맡았었습니다. 상여 치주 자재도 일반적이던 일임으로도 받았습 니다.

Q. 우리 치과대학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중성대학교 병원에서 임상적으로 active하고 상여 치주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임상 경험을 많이 끌어올린 곳이었으나 치과대학에 있는 치과진료부이다 보니 학생인 현재(가)가 있었 었습니다. 연구분야 위해서 치과대학에 있는 병원은 조금 차이가 남을 밖에 있었습니다. 연구 목 에 관심이 있었고, 교황이 대구는 아니지만 경상도이고, 대구가 부활날 고향이기 때문에 어릴때가 많아서 경북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학과 10년 만에 치주과에 경북대수직 공과가 나와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지원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Q. 학생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기억에 남는 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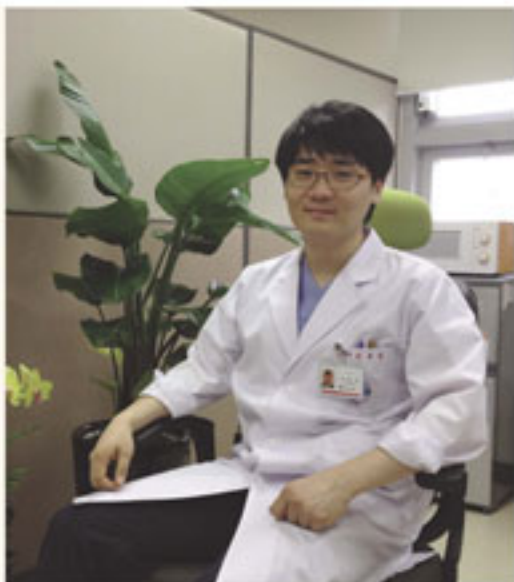
A. 대학교 때 말하는 거죠? 자시고 보니 개인적인 소소한 것들은 많이 잊혀지는 것 같고, 동아리 활동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학교 다닐 때 동아리 동아리와 농구 동아리를 했었는데 특히 동아리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순계전년도 하고 그해전년도 6-7명이 공부하던 치과대학안 코에서 받았는데 거기서 공전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학교가 바닷가다 보니 점심은 경포대 앞에서 먹던 단 거먹, 바닷가에서 물타먹을 많이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웃음)

Q.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A.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생리학은 1주일에 한번씩 치고 하루에 한 과목씩 현대 내내 시험본 적도 있었고, 거기에 실습까지 맞추어야 하나씩 그런 것들이 힘들었 습니다. 다재로 학생과리를 공부했었는데 한 번 침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향에서 중간고사 때 답이 몇 개인지 전 정해진 답들을 초스스 병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때 배운대로 하해서 5등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험 때까지 마음을 놓아다가 다행히 기말고사 때 회복을 했지만, 그 중간고사 화 기말고사사이에 공부하면서 지로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Q. 지금의 전공을 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지금 생각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생각은 치주과를 택하는게 좋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배울 수 있고 의료 배우면 진짜 스펙도 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그때 당시 일을 완료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인턴이 모든 과를 다 돌고 나중에 과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때만 해도 환류생 7개에 보는 거 다에서 당시에 어느 병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잘못 선택했다는게 아니라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Q.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과의 자질을 해주신다면?

A. 사실 우리 치위생 치주과로 오기 전 아무도 아는데, 치주학에 가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가장 세 들있는 발표를 하는 곳이 경북대입니다. 실제로 논문 나오는 경우도 순우리고도 탄탄한 교실용 거지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상에서 연구인프라를 어떤 것 같 갖춘 곳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교수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Q. 휴일이 있으신가요? 진료과 감의 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려주세요.

A. 제가 신임이다 보니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교실에 잘 어울려 어떤 새로운 태도를 정해서 같이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잘 없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과 새로운 태도를 정해서 실천시키는 것 두 가지가 제일 우선입니다. 하여상용이라 보다 보통은 다른 분들과 만나서 술 전담 하며 보냅니다. 학교에서 다 처음 만나는 분들아니라 친해지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할 단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코포지 또 학생들과 어울리고 싶었는데 인태관행에서 배워 채고 용이 한 좋아해서 좀더 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학생들과 더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 치위생 학생들에 대한 인상은 어떤가요?

A. 치위생 학생을 마주하면 것은 처음인데, 처음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학생은 학생아니고, 치과대학도 이윤이 조금 더보단 학자인 나이 있으면서 분도 있어서 나이에 대한 편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도 있어서 학생들에게 전문 실용 볼 수 있는 것도 치위생의 장점이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볼 것은 아니지만 소속감있고 애교있을 것에서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살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대 초반의 처음 다닌 학부에 대한 기억이 조금 일찍보 도 다르겠지만 여기 치위생에서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학교에 대한 사랑을 좀 더 보여달라는 말씀을 합니다. 공부하는 단념력 하는 거고 사할에 대한 후회도 많이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치과의사 인턴제 폐지

- 실효성 확대인가 의사결정권 침해인가

김영자 / 전문 기자

올해 초 보건복지부에서는 폐사가 되기 위한 실제 수련제도인 인턴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폐지하기로 했었지만 최근 의대생들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 3월, 이 같은 입场上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치과 의사 인턴 제도의 폐지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발표에 현재 재직 중인 치과대학생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치과 의사 인턴제 폐지에 관한 공청회

지난 2005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 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에서는 '전문직 제도 개선 - 인턴제도 폐지를 권의할'이라는 기초정보를 통해 치과 의사 인턴들의 임상 시수 확보는 및 의사들은 교수 진료보조, 초진환자 진료기록부 작성, 단순 임상재료, 치과기공품 제작, 방사선사진 관리, 검사실 기록관리, 환자 교육, 환자 약속 변경, 환자어음 관리, 입원환자 관리 등 단순한 진료실 업무 뿐 아니라 논문 작성, 실용성 보조, 강의 및 세미나 진행 보조, 사무실 정리 등의 비임상적인 업무 등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인턴 수련과교육과는 포괄적인 교육과정이 없이 병행하다 다음 뿐 아니라 임의적이어서 폐사의 지원방향을 위한 프로그램이거기보다는 단순히 제지인의 시수를 보기위한 통과 과정으로만 여기지고 있고 제지인의 교육과정과 달리 인턴 수련교육에 대한 지도, 감독이거기나 특정한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을 꼽았다.

이 후 10년간 지지부진 했던 인턴제 폐지는 복지부가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방향을 제시하면서 가시화 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입장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수련기간 단축을 통해 교육이나 교습 병행으로의 진로 시기가 빨라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또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 선택의 공간이 가동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인턴제도의 수거능인 다양한 과를 경험한 후 특정 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약탈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 병원 내 인턴의 모습



▲ 병원 내 인턴의 모습

보건복지부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치과 의사 전문의 제도를 도입한 직후 10대 전문 과목 중 구강악안면외과와 핵심과를 비롯한 5개 과목에서 지원사태가 난 점을 바탕으로, 치의학계 전문과목의 학문적 기본, 치과대학 졸업 후 임상 교육 기회와 상생, 지방 치과 병원 및 종합병원, 대학병원 치과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인턴제도 폐지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며, 인턴 제도를 문양하는 외국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턴제도 폐지에 앞서 여러 사항들이 수렴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는 앞으로 배출될 치과 의사들의 많은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불측 병행에 불과할 것이다. 먼저 각 전문 과목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먼저 조사하고 그 수요를 충족할 때까지 기존의 전공의 장원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 사례를처럼 전문 과목을 2-3과목으로 제한하여 시행함으로써 특정 전문 과목에 대한 불균형상이나 미흡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좀더는 인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졸업 후 1-2년 과정의 일반치과 의사 양성제도를 병행함으로써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치과 의사 양성을 하는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 더불어 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년 과정 동안 충분한 임상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일정 수련 시간 없이도 특 하는 교육 과정의 확립이 필수적일 것이다.

인턴제 폐지 찬성 의견

- 1 인턴 수련과교육과는 포괄적인 교육과정 없이 병행하다 다음 뿐만 아니라 임의적이어서 폐사의 지원방향을 위한 프로그램이거기보다는 단순히 제지인의 시수를 보기 위한 통과 과정으로만 여기지고 있고 제지인의 교육과정과 달리 인턴 수련교육에 대한 지도, 감독이거기나 특정한 수단이 없다.
- 2 의과와 일반을 비롯한 대학원의 국가에서 치의학사로서의 지도와 경구 인턴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 3 학생 임상교육 과정을 통해 많은 기본 수기를 학생 과정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음에도 이를 인턴에게 반복하는 것은 낯나다.
- 4 의대에 달리 치대에서는 한학생 임상 실습에서 이미 편지를 각 과에서 직접 시수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인턴 과정 중에 배우는 것이 한학생 시를 배웠던 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의대의 인턴과정과는 차이가 크다.
- 5 현재와 같은 형식적이거나 경직된 새로운 인턴제도가 여러 문제점을 발생한다면 인턴과정을 제지인도, 과정의 일부로 흡수시킨 후 제지인의 기간을 각 과의 자원에 따라 3년이나 4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6 인턴 과정을 폐지함으로써 인해 아무런 부분이 없다면 한학생 임상실습을 충실히 감하시킬수있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7 지방 치과 교수들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교수들이 인턴과정의 폐지를 선호했다. 앞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학부 과정 중에 인턴 과정에 해당하는 서브 인턴제 교육을 수료하고 졸업하기 때문에 이를 졸업생들에게는 전공의과정에서는 인턴제도가 불필요할 것이다.

인턴제 폐지 반대 의견

- 1 2004년 10월 전국 치과 4년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턴 과정에 남아 더 배우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이 72%나 된다. 인턴제 폐지는 더 의료인과 비교할 때 병동근로와 병동수구근로를 침해하는 것이다.
- 2 인턴 과정 동안 다양한 과를 경험함으로써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3 인턴 과정 없이 졸업과 동시에 특정 전문과목에 지원할 경우 불합격하면 국가고시 성취에 의해 결정되지 되므로 전문과목에 대한 관심이나 깊은 연구보다는 학생들 간의 이윤 없는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 4 졸업 후 오고거기나 이 치과대학 병원에 들어가거기나 더 활동할 것이다.
- 5 의사, 치과 의사, 한학생이 동일하게 의료인에 묶어 있는 상황에서 의사, 한학생들과의 행방이 맞지 않아 인턴제 폐지는 어렵고 위험, 한학생과 함께 연구해야 한다.
- 6 인턴제를 폐지하면서 서브인턴제로 대체한다는 것은 임상 치과 의사면허증을 일부러가 전에는 면허증이 있는 인턴제를 서브인턴제에 대체할 수 없다.
- 7 서브인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교육비가 소요된다. 병동 경쟁력도 감퇴해야 하는 한체로서는 어렵다.

보건복지부-한국치과대학연합회 주관 인턴제 폐지 설문조사 결과 (전국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총 응답자 수 : 221명)			
	찬성 또는 그렇다	반대 또는 아니다	
1. 인턴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5명 (74.7%)	56명 (25.3%)	
2. 제지인의 수련기간에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78명 (40.8%)	113명 (59.2%)	
3. 현 치과 전문과목(10개)분류가 적절하십니까?	203명 (91.9%)	18명 (8.1%)	
4. ACG 수련이 필요하십니까?	147명 (74.8%)	55명 (25.2%)	
5. 졸업 후 바로 원자 진료가 가능하십니까?	130명 (62.5%)	78명 (37.5%)	



4.11 총선 결과가 미치는 대선정국의 향방

홍기현 / 서울한신대



▲ 19대 총선 결과

지난 4월 11일 치러진 19대 총선과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를 합쳐 152석을 얻으면서, 원내 1당의 지위를 유지했다. '일본식안'의 외교, 특히 100% 목표라는 비군축과 선 거간 선 치면 민간인 사살 파문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튀기는 놀라운 결과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확보하는 것이 당면하게 예상했던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전대까지 열렸어도 도합 140여인(통합 126+통합진 14)에 그치고 말았다.

12월 대선정국의 향방

민주통합당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기에 다 이런지? 생각한 선거를 의전해 달한 것일까? 민주통합당이 지켰던 가장 큰 실수는 전략을 잘못 설정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중립으로 이번 선거에서 당당히 지지하면서 MB정권과의 선 거투쟁을 통해 반핵안 수용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의 MB당선 심판론만을 들고나왔다. 그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이 승리 하면 MB정권을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핵공에 가르는 일찌감치 야권과 심판론이라는 무기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다. 또한 박근혜 후보의 존재는 아무런 야권이 될 정부의 양자보라고 노력해도, 일단 공천까지 논하는 한에 다는 사실, 그리고 야권파는 직접적인 인물이라는 인식이 있음을 놓쳐 버렸다는 것이다.



▲ 민주통합당의 새누리당 지지

두 번째 실수는 '니콜루'로 대표되는 인터넷 상의 목소리에 기댄다는 것이다. 분명 니콜루 지지자들은 상당수 존재하며 그들이 이들 지지층을 형성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큰 국민에서 볼 때 소수일 뿐이며 특히 투표율에도 그 높은 50대 이상의 일반인들에게 전략적 언어와 과학적 주장을 펼치는 모습으로 바꾸어주도록 공감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터넷 인터넷 50% 안에서 적극적인 주장으로 인해 목소리가 자그마치게 보이는 특이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인데, 민주통합당은 특이현상에 속이 이번 총선에서 니콜루 프랜차이즈를 전역에 퍼뜨린 것이다. 결국 김정은 후보의 지지를 위한 비핵안과 민주통합당이 공짜로 불협음에도 한영국 대회는 그를 내치지 못해 중도성향의 무용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거기다 통합당과의 무리한 공조와 박근혜 사퇴를 원한다고 하면서 일반인들의 참여까지 속 red complex를 무주강기며, 19대 총선으로 MB정권이 새누리당에게 넘어갈 것이다.



▲ 대선정국 도식

12월 대선정국의 향방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박근혜 후보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낙선되고 불 수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석권한 강원지역과 다수의 지역을 지키는 충청지역에서의 승리는 박근혜 후보의 존재감으로도 선거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잘 드러난 사례이다. 이번 선거로 인해 박근혜 대선후보의 대선정국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결과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후보의 영향력은 수도권에서의 패배가 얼마주도 제한적인 일일이다. 또한 이번 선거의 정당률 목표와 지역구 목표수 모두 새누리당(48.26% / 43.3%)에 비해 야권연대의 목표(48.56% / 43.9%)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박근혜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정당은 최선이나 김정은 경까지도 같은 수컷은 같은 수도는 유력인사들의 경선도 예측할 수는 없다.

이번에서는 기존에 있던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었던 문재인 전 수석이 부수 내 선거결과에 따른 책임으로 인해 주목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철수 정당의 조기유권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안철수 겸직 스스로가 정파까지 대선정도에 대한 불명확한 자세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100%승리만이라고 확실할 수 없는 상태이다. 만약 승리한다면 최야당도 기존 미지수 연대 없이 단독승리 사례는, 지난 대선에서 문국현 후보가 보여준 선거이후의 불안한 행보가 충분히 예상되기에 기존 민주통합당과의 후보 단일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당내 지지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안철수 겸직 단독으로 민주통합당에 입당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며 최야당에서 지지율의 구할 수 없는 과정을 거치거나 후보 단일화 협상을 통한 승야 목표로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선거결과에 책임을 지고 현안수 대회가 시키는 이후 비노계열의 무성으로서 대외주적인 손학규 전 대표가 거론되며, 전노계열에서도 세운사에서 당선된 미해한 김정은 경까지도 경선승리가 예상된다.



▲ 새누리당(붉은색), 민주통합당(파란색), 노동당(초록색), 진보당(보라색)의 지역별 당선지역



▲ 김정은 지지



▲ 새누리당 대표 박근혜 지지

연재 기사 1

특별한 취미를 가진 사람을 소개합니다~~!!



고려대학교 / 02-512-1199

-3명 남짓한 황선로군 자취방의 비밀은...?

취미 및 특징: 정신을 소확하고 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 하는 활동이다. 정신은 어떤 의미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음, 노래, 음악 들을 들을 때 쓰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고 진부한 내용을 들 뿐이다. 지금부터 별난 취미와 특징으로 모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두 사람 을 소개하겠다. 바로 12학년 신입생인 황선로(12비교과) 학생과(17)군이다. 그렇 지 흥미 별난 취 미와 특징에 대해 낱말이 배우게 도움을 주겠다.

-학생신문의 이번은 다음호에-



28세 황선로군은 자신의 취미와 특징을 소개한다. 그는 자신의 취미와 특징을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취미는 예술, 음악을 좋아 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무엇이 그를 그렇게 흥미롭게 만들었을까?

그의 집에는 황선로군만의 별난 취미가 있다는 제 보를 받고 그렇게 신기함을 호기심과 그는 문화적 유산이라고, 비 록 필요로 보았다. 그는 유산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도 아니다. 그의 방은 3명 남짓한 작은 방이었다. 실컷까지 안고가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매우 잘 정리된 방이 그의 집안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깔끔한 것을 빼고는 어느 자취방과 별한 다르지 않음을 느끼고 조금 실망했 을지만 그들을 통해 그것들을 소개하게 하는 일을 마음 수 없었다.

120여개의 동양을 담은 눈이 들 서게 나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방 안쪽 구석에 작은 방금의 나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 그것은 정말로 멋지게 꾸며져 놓은 자취방이 다. 조금 작은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기에 놓여 있 는 그 것들은 정말로 예뻐서 생긴 소확방이었다. 약 60여 개의 소 확 방들이 열려 나를 끌어들였고 그들을 꾸미는 생각도 들었다. 높은 마음을 가져왔다고 나는 황선로군과 특별한 취미에 대해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Q. 정말 놀랐다. (취미) 취미들은 다 무엇인가? A. 노래와...
Q. 나도 하고 싶어 소확방은 좀 적은 것 같는데 취미들은 네 개인데 그것들을 조금 많이 다르게 생긴 것 같다. 정말로 무엇인가? A. 별다른 취미가 아닌데는 취미가 있다. 취미가 아니라서 는 싶고 있지 않는 것이라서, 관심입니다.
Q. 그걸 취미로 삼았는 것인가? A. 4년간의 취미에서 처음 하고 나서부터 취미를 취했다. 그 이후에 정말 소확방의 취미에 대해 소개하면서 취미들이 더 많아졌다가 지금은 취미이다. 국내에서 소확방을 취급하는 곳 중 취미의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 없을까 싶어 가끔 찾은 곳인데 그 근처로 학교를 가게 되어 지금은 없다.

Q. 정말 취미가 크다. 정신의 핵심으로 다 보면 면적을 취미라고 하는 것 같다. 몇 개 취미도 있고 없는가? A. 취미 세 군데 위 소확방도 존중, 작은 눈 앞이면 60여 개의 방도 된 것이다.

Q. 그걸 한 취미로 삼아도 되는가? A. 가격은 조금이나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 취미 보다는 상업적이 되고 취미는 물론 한 취미 3-4만원 정도이다. 작은 눈들은 소확방만 구입할 수 없다.

Q. 그걸 소확방을 배우는 데는 어려울까? A. 공부하는 요령이, 지금이니까 어렵게도 하지만 수백만원도 된 것이다. 사실 거리는 많 은 것을 배우는 것만 내게 소개시켜 주었다. 저 눈들을 배우는 것들도 좋지만, 큰 취미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나는 소확 방 구입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조금은 기 싸워 줄 수 있는데, 저 눈들은 배우거나 상업적 일을 안보려 싶고 건당하고 있다. 정말로 취미이다.(취미)

Q. 정말로 취미인가? A. 지금까지 4년 정도 되었다. 나로 해서 좀더 더 나은데 보내려고 하고 계속하게 고가하게 되면서 계속 되고 있다.

Q. 매우 흥미 깊은 취미라고 할 수 있고 좋았는데 취미라고 하면 취미를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취미라고 소확방을 배우게 된다. 취미라고 소확방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만나 시켜주게 되었다. 소확방 우리도 많았다. (취미) 취미 친구에게 선물한 소확방이 30 여개가 있습니다. (취미)

Q. 앞으로의 취미 사육에 대해 좋은 무엇인가? A. 소확방 들은의 아끼기 되고 있다. (취미) 소확방은 취미가 사육적으로 인공관찰에서 번식해 성공하지 못한다. 자연관찰에서 보살피기 하는 것, 소확방의 특징을 잘 배워야 하므로 내가 일을 할 때는 순정 때문에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 다. 지금의 취미라고 할지 모르지만, 취미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소확방을 기르며 사육적으로 인공번식을 성공해 되고 있다. 또한 소확방은 신체의 일부가 잘라내어 심장을 통해 재생하는 수 있는 것이라 의사가 되어 이것을 치료해 주어야 하는 연구하는 것이라서 되고 있다.

Q. 정말 놀랐다. 나중에 사육하기도 하니 관심을 수 있는가? A. 물론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배우게 될지는 모르나 하니 관심을 주겠다.





이 길을 걸어서고 일몰에 서서도 새얼이 흐르면서
바람 물과 새들의 refresh가 필요하
면언도 새로운 곳에서 새어리라고 일사,
대고에 물에서 새어리고를 새어리도 새어리도 새어리다.

이런 풍경을 위해 추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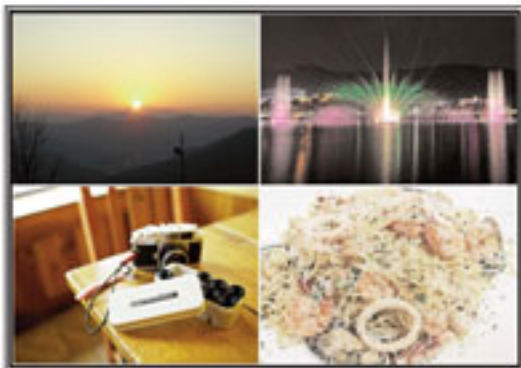
DATE COURSE!!

표 이산, 한양 / 2012. 5. 10

대구에 살고 있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산, 알산

대구 북구 남쪽을 흐르는 알산, 대구를 대표하는 도심 공평한 알산은 수많은 대구 시민이 즐겨 찾는 곳이다. 천연림에 가까운 참나무 숲과 잣나무 숲은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천혜의 삼림욕장이다.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봄바람불어 알랑알랑한 마음으로 산을 타려고? 하지 친구가 힐링산고 해이든 나뭇잎의 산을 타려고? 고압계도 알산에는 कै이볼카가 있다. कै이볼카를 타고 올라가면 알산 전망대가 나온다. 알산 전망대에서 보면 하늘에서 대구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앉았던 일상을 알아배려고 오지. 나는 알산을 대 두달로 느껴보고 싶다는 사람은 올라갈 때 कै이볼카, 내려올 때는 정선로로 내려오며 산을 거닐며 체험하는 것도 추천한다.

알산에는 봄
당동교에는 750년 배스다고 통행 알산은
본 고고학에서 오지, 지게를 이용 시 알산
공원 이용 주차장에 주차,
캐이볼카 요금 대만 약 7000원
전도 5000원



알산 커피거리

알산 주변에는 허파와 최첨단 될 곳이지만 알산 아래 남구 대평 9동 일대에는 커피거리로 불리는 주택가 카페 골목이 형성되어 있다. 70~80년대 대구 최고의 부촌으로 대지세의 양육을 이 알산에 있던 곳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알산의 고급 주택들이 커피숍으로 리모델링되어 커피거리가 조성되고 있으며,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까지 들어서면서 알산마을 타기 시작했다. 스타벅스를 오면대신 밀지를 판매해서 골라주는 곳으로 유명한 배우를 데리다 'beans 마켓 (Beans Market)', 40년 된 미당을 그대로 살려 여성계 소풍을 촬영지라도 걱정받고 있는 '도도 현산', 워양 커피로 유명한 '하원(ASSAMI)' 등 대구 지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필수 매이트 코스에 된 곳들이 자리 잡고 있다. 영남대 근처에 신학기 교수가 설계한 '커피 508'은 매일 전사할 약 500명이 커피니를 할 수 있는 2층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체험관광객으로 사의 기능을 다한다.

수성못 분수쇼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맛있게 밥을 먹었다면 가볍게 산책하며 물만의 시간을 거치는 곳은 어떨까? 대구의 수성못은 많은 커플들이 찾는 장소이다. 오리배를 타는 연인들도 있지만 가볍게 테이크를 마무리하고 싶다면 추천하지 않았다. 수성못 주변을 따라 걸으며 함께 있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서울 남산 사랑의 자물쇠처럼 대구에도 자물쇠를 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피코 옆에 있는 그 /그와 사랑을 더 채우고 싶다면 수성못에서 사랑의 자물쇠를 채우자. 아직 대구 시민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자물쇠가 많이 안 채워져 있지만 곧 남산 결혼장터형 자물쇠로 채 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해가 진 수성못을 따라 걷다보면 대구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야경과 더불어 5월부터는 분수쇼가 진행된다. 신채마드가 야근전망대로 아름답게 관람하면 좋다. 음악에 따라 12m의 거대한 분수에서 물줄기가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아래 벵의 화려한 조명이 색을 입힌다. 워터에서 레이저가 나와 화려한 빛과 열광을 이룬다.

일출 5월, 8월, 9월, 10월 / 오후 6시, 9시
6월, 7월 / 오후 8시 30분, 9시 30분
두 차례 걸쳐 30만명도 관람

33 steak house [삼삼 스테이크 하우스]

가끔씩은 특별한 가격으로 잘 나온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는 곳. 알산 커피골목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우에는 약 4개 정도의 매점인 곳이다. 스테이크는 2인분 기준으로 주문가능하며 주문 시 우유도 함께 제공된다. 요리 배워하고 가는 것이 좋다.

주소 남구 대평9동 648-33
TEL. 053 622 0933 / 010 2054 4125
주최처 New York Strip, Prime/해물 요리 스테이크 38,
Rio Eye (해물 스테이크) 30, (해물) Pasta, wine 등



DSLR 렌즈 추천

▲ 김민 / 편집장

본 기사의 목표는 다양한 크레딧을 고려하여 구매할 만한 렌즈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렌즈의 종류와 특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본 기사의 목표는 다양한 크레딧을 고려하여 구매할 만한 렌즈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렌즈의 종류와 특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본 기사의 목표는 다양한 크레딧을 고려하여 구매할 만한 렌즈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렌즈의 종류와 특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1. 렌즈의 종류 및 용도

- **초대형 렌즈 (300mm 이상)**: 사진 촬영 시 초점 거리가 300mm 이상인 렌즈를 사용하여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까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300mm의 경우 카메라와 피사체 간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촬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 **중형 렌즈 (100-200mm)**: 사진 촬영 시 초점 거리가 100-200mm인 렌즈를 사용하여 중간 거리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100-200mm의 렌즈는 초점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촬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 **소형 렌즈 (50-100mm)**: 사진 촬영 시 초점 거리가 50-100mm인 렌즈를 사용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50-100mm의 렌즈는 초점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촬영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 **초대형 렌즈 (300mm 이상)**: 사진 촬영 시 초점 거리가 300mm 이상인 렌즈를 사용하여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까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300mm의 경우 카메라와 피사체 간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촬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 **중형 렌즈 (100-200mm)**: 사진 촬영 시 초점 거리가 100-200mm인 렌즈를 사용하여 중간 거리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100-200mm의 렌즈는 초점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촬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 **소형 렌즈 (50-100mm)**: 사진 촬영 시 초점 거리가 50-100mm인 렌즈를 사용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50-100mm의 렌즈는 초점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촬영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17-26-70mm F2.8, 1.8M, 1.8M (300mm, 1.8M, 1.8M)



크레딧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렌즈 중 하나인 17-26-70mm F2.8 렌즈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26-70mm F2.8 렌즈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26-70mm F2.8 렌즈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26-70mm F2.8 렌즈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P AF 17-50mm F2.8 XR Di II LD Aspherical IF, 1.8M, 1.8M



본 렌즈는 크레딧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렌즈 중 하나인 17-50mm F2.8 렌즈입니다. 17-50mm F2.8 렌즈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50mm F2.8 렌즈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MMX 0.30mm F1.7 ASPH, 1.8M, 1.8M



본 렌즈는 크레딧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렌즈 중 하나인 11MMX 0.30mm F1.7 렌즈입니다. 11MMX 0.30mm F1.7 렌즈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MMX 0.30mm F1.7 렌즈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 85mm F1.8 1.8M, 1.8M, 1.8M



본 렌즈는 크레딧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렌즈 중 하나인 19' 85mm F1.8 렌즈입니다. 19' 85mm F1.8 렌즈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 85mm F1.8 렌즈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mm F1.4 IX DC HR, 1.8M, 1.8M



본 렌즈는 크레딧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렌즈 중 하나인 30mm F1.4 IX DC HR 렌즈입니다. 30mm F1.4 IX DC HR 렌즈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mm F1.4 IX DC HR 렌즈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P-S 17-50mm F2.8 Di II 1.8M (300mm, 1.8M, 1.8M)



본 렌즈는 크레딧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렌즈 중 하나인 SP-S 17-50mm F2.8 Di II 렌즈입니다. SP-S 17-50mm F2.8 Di II 렌즈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P-S 17-50mm F2.8 Di II 렌즈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